국제·지역연구 12권 2호 2003 여름 pp.47-65

호주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 구성

김경학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호주에 거주하는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 구성(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을 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도인이 휘지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과 철저히 이질적인 휘지 원주민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 휘지 내의 '인도인 종족성' 구성을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휘지계 인도인의 호주 이민과 정착 및 사회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휘지에서 가져 온 종족성과 기(旣) 형성된 사회적 조직 및 연망(network) 등이 호주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그들의 종족 정체성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주류 백인집단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남아시아인으로의 규정과, 소위 정통 인도인이라는 직접 이주자들의 휘지계 인도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화(differentiation)의 과정이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의 정체성은 언어와 음식 등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과 기존의 사회적 연망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성격은 아니다. 휘지계 인도인의 정체성은 대(對) 백인들과 그리고 직접 이주자 인도인들과의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은 자신들의 언어사용, 종교활동의 특징 등의 일부 문화적 토대와 독특한 사회 조직과 경험을 통한 자신들의 '종족적 동일시'와 백인, 직접 이주 인도인 등 외부자에 의해 부여되는 '종족적 지정'(designation) 간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여진다.

¡ß Ǻ Ą́ ¾ : Ḃ ǻ ê Â µ Â , Ǻ Á ǻ Ã ¾ , Ù ǻ à À Ǻ Ǐ , À Ǻ , Ǻ Á µ Â Ã

I. 문제제기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휘지계 인도인들(Indo-Fijians)은 약 120여년 전에 인도 대륙(Indian Continental)을 떠나 휘지에 정착한 계약노동자(indentured labourers)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인도 대륙과 전적으로 단절되어 휘지에 살아왔기 때문에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에서 직접 이주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주 경험을 갖고 있다. 호주에서 그들은 인도 출신 직접 이민자들과 관계를 거의 갖지 않고서 자신들만의 각종 종교 조직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휘지계 인도인보다 호주에서의 이민의 역사가 긴 직접 이주자 인도인들은 휘지계 인도인의 '인도인성'(Indian-ness)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그들을 '완전한' 인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한다.

휘지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휘지계 인도인은 휘지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정체성 딜레마를 경험한다. 문화다원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여전히 앵글로색슨 백인 주도사회임에 틀림없다. 이

들 백인들은 휘지계 인도인의 독특한 이주 역사에 관계없이 피부색 등 외형적 특징만을 토대로 휘지계 인도인을 단지 여타 남아시아 이민자로, 그리고 넓게는 아시아 이민자로 인식할 뿐이다. 현재 호주 센서스는 인종주의를 배제한다는 근거로 출생국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한다. 따라서 휘지계 인도인은 센서스 내에서 휘지 원주민 출신자와 함께 '휘지인'의 범주로 분류된다.

한편 직접 이민 온 인도인은 휘지계 인도인을 '순수하지 못한', 또는 '정체불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이주자들은 외형적 특질로는 자신들과 동일하지만 언어, 행동양식 및 사고체계 등이 자신들과 상이한 자신들의 '잃어버린 과거의 사촌들'(long-lost cousins)인 휘지계 인도인을 대면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당혹스러워 한다.

한마디로 휘지계 인도인은 호주사회에서 백인들로부터는 남아시아인으로 규정되지만 인도의 직접 이주 집단으로부터는 '부적합한' 인도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외부적 시각과는 달리 휘지계 인도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정체화시키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아시아 대륙과 관계없는 남태평양의 '아일랜더'(Islander)로 또는 인도와 직접적 관계없는 인도 기원 '휘지인'으로 정체화한다.

본 연구는 호주에 거주하는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 구성(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도인이 휘지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과 철저히 이질적인 휘지 원주민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 휘지 내의 '인도인 종족성' 구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휘지계 인도인의 호주 이민과 정착 및 사회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휘지에서 가져 온 종족성과 기(旣) 형성된 사회적 조직 및 네트웍 등이 호주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그들의 종족 정체성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종족성을 원초적인(primodial)인 속성보다 상황적(circumstantial)이고 출현적(emergent) 속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비록 언어, 종교, 영토, 역사 등의 귀속적 속성이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의 유지 및 새로운 구성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화적 내용물 자체가 종족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속성들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와의 관계나 "주요 집단(major group)으로의 편입(incorporation)이 거부당하는 상황처럼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종족성 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Eller and Coughlan, 1993).

나겔(Nagel, 1998)의 주장대로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은 자신들의 '종족 동일시(ethnic identification)' 와 원주민(휘지에서), 백인·직접 이주한 인도인(호주에서) 등의 외부자(outsiders)의 '종족적 지정'(ethnic designation) 간의 변증법적 과정의 산물이다. 또한 바쓰(Barth, 1969)에 따르면 휘지계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은 자신들과 타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족적 경계(ethnic boundaries)의 개념과 밀접히 관계된다.[1)]

II. 휘지의 인도인의 역사적 배경

휘지에서 인도인의 역사의 시작은 멀리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4년 영국에 자진 복속된 휘지에서 영국 제국주의 세력은 휘지 원주민사회를 근대 상업과 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탕수수 플란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을 원주민을 대신하여 멀리 인도 등 남아시아로부터 데려 왔다(Lal, 1983; 1996). 1879년 479명의 인도인 계약노동자가 휘지에 첫 발을 딛으면서 시작된 휘지에서의 계약노동제는 1916년 폐지되기까지 약 6만6백40여명의 인도인을 휘지로 불러들였다. 인도 현지에서 노동력 구인 사업체에 의해 자세한 노동의 내용 등을 설명 듣지 못하고 달콤한 감언이설에 5년을 계약조건으로 온 인도인들의 휘지에서의 삶은 거의 노예 같은 생활로 인해 인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다.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유럽인 농장주의 강한 회유와 당시 열악했던 인도의 경제적 현실 때문에 약 60%의 인도인은 휘지에 남아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의 휘지에서의 삶은 시작되었다(Gillion, 1962).

소위 이들 '기르미티야'(Girmitiya)[2]의 사회 조직적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카스트 집단별로 또는 마을 단위별로 이주하지 않고 개인적 단위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카스트가 이들의 생활전반, 즉 의례, 혼인, 노동 등을 규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에서 휘지까지 오는 장시간의 항해에서 카스트에 따른 식사관습과 주거의 구별처럼 개별 카스트의 행동규제는 지속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휘지 도착 후 개인의 카스트적 지위와 무관하게 플란테이션 농장주로부터 지시된 동일한 노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3-4명의 남성에 1명의 여성 노동자라는 극히 불균등한 성비는 카스트에 따른 혼인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 모든 조건들이 인도 대륙에서 거의 신조처럼 지켜오던 카스트 원칙이 휘지에서 쉽게 와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카스트를 대신하여 인도인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한 북부 인도인, 남부 인도인, 종교를 중심으로 한 힌두와 무슬림 등으로 대별되었을 뿐이다(Mayer, 1961).

정치적으로는 197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휘지 원주민의 지지를 받는

---

1) 바쓰(F. Barth, 1969)는 종족성의 개념이 가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족성을 사회적 귀속(social ascription)의 산물이면서 자신과 타인이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명명과정(labelling process)으로 본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종족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에 의한 견해의 구성물(a composite of view)이라 간주된다. 즉 종족 정체성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상황과 인물의 다양성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족성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은 종족정체성의 한 묶음(a portfolio of ethnic identities)을 지니고 다니는 셈이다.

2) 휘지로 온 계약노동자는 흔히 '기르미티야'(Girmitiya)로 알려져 있다. 이는 5년을 '계약'으로 온 노동자를 뜻하는 것으로 '어그리먼트'(agreement)를 인도 노동자들이 잘못 발음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이다(Lal, 1983).

휘지 동맹당이 17년 동안 집권하였다. 그러나 1987년 4월 총선에서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휘지 노동당과 인도계의 국민 연합당의 연립 세력은 집권당인 휘지 동맹당을 누르고 평민 출신 휘지 원주민 바바드라(Bavadra)에 의한 노동당 정권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른 불만과 불안을 느낀 원주민의 반 인도적 정서를 토대로 삼아 원주민 출신 군인인 라부카(Rabuka)에 의해 주도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노동당 정권은 1개월만에 집권을 마감하였다. 이후 계속된 1987년 10월과 2000년 5월의 쿠데타는 휘지 대부분의 정책을 친 원주민, 친 기독교, 반 인도인적 성격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의 첫 쿠데타 이래 자격과 능력을 갖춘 많은 수의 인도인들의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으로의 이민 행렬이 시작되었다.

사실 인구 면에서 보면 1940년대 중반이래 인도인은 휘지 원주민을 수적으로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7년 첫 쿠데타이래 인도인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6년의 휘지 센서스에 따르면 휘지 전체 인구 775,077명 가운데 원주민은 약 50%, 인도인은 약 45%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럽인, 중국인, 유럽 혼혈아, 태평양 군도 출신자로 구성되었다. 휘지 독립 이후 지속되어 온 휘지인의 '다수 만들기'(making majority)는 군사 쿠데타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III. 휘지의 인도인 종족성 구성

계약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유 노동자가 된 인도인은 휘지의 2개의 주 섬인 바누아 레부(Vanua Levu)와 비티 레부(Viti Levu) 섬의 사탕수수와 코프라 생산이 가능한 지역 예컨대 난디(Nadi), 라토카(Lautoka), 나소리(Nausori), 람바사(Lambasa) 등에 집단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들의 정착지와 원주민의 정착지가 근접한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질적인 두 집단의 주거지는 분리되었다. 휘지 정착 후 중요한 타자인 원주민과의 관계에서 인도인은 생계방식, 종교, 언어, 혼인관계 등의 요인들을 토대로 한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종족성을 구성하였다.

휘지 내에서 원주민과 인도인간의 종족성의 경계의 한 가지는 토지소유가능 여부라 여겨지며, 이를 통해 '토착민'과 '이방인'의 정체성이 구성된다.[3] 사탕수수 노동자로 온 인도인은 자유 노동자 신분으로의 전환이래 사탕수수와 코프라와 같은 현금작물을 원주민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서 재배하였다.[4] 인도인은 농업

3) 휘지에서 토지소유자를 지칭하는 따우께이(taukei)와 외지인을 지칭하는 불랑이(vulagi)관계가 원주민 민족주의인 따우께이즘(taukeism)으로 발전했고 따우께이즘은 휘지 원주민과 인도인간의 인종적 대립을 심화시켰다(이태주, 2000:168). 따우께이즘은 토지를 매개로 한 원주민 자신들만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표현들의 토대가 된다.

에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대체로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이래 자유민으로 이민 온 구자라트(Gujarat)와 펀잡(Pujab)의 상인[5]들에 의해 다져진 상업[6] 부문에도 일부 인도인들이 발을 딛음으로써 현금작물 임차 농업과 상업에의 종사는 인도인의 정체성 규정에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인도인들과는 달리 원주민은 주식인 카사바(cassava)와 타로(taro) 등을 재배하는 생계경제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휘지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이 분야에의 진출이 활발하다.

인도인은 스스로를 특유의 부지런함과 검약으로 원주민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한 일종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따르는 자들로 생각한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양고나(yaqona)나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원주민과의 대비를 통하여 구성된다.

인도인의 힌두스타니(Hindustani)의 사용, 힌두교와 이슬람의 신봉, 인도인 족내혼(endogamy) 고수 등은 원주민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 휘지 내 인도인 정체성 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계약노동자로 온 이민 당사자들의 출신지는 전 인도에 걸쳐 다양하여 남부지방 출신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하르(Bihar)와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등의 북부 인도 출신이었다. 따라서 북부 인도의 대표적인 언어인 힌디(Hindi)의 방언들인 보즈뿌리(Bhojpuri)와 아와디(Avadhi)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일부 휘지어와 영어의 단어가 뒤섞인 '플란테이션 힌두스타니'(plantation Hindustani)라는 새로운 언어가 탄생되어, 이는 마침내 휘지계 인도인의 공용어가 되었다. 이밖에도 인도인과 원주민은 자신들의 언어 외에도 공용어인 영어를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인도인은 약 80%이상이 힌두교도이며, 무슬림 약 10%, 나머지는 시크교도와 기독교도로 구성된다. 소수의 기독교도의 발생은 휘지 정착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집요한 개종작업의 결과이지만 종교에 관한 한 인도인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종교에 집착하여 왔다. 조상숭배를 토대로 한 토착 종교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은 기독교도라 간주되기 때문에 종

4) 휘지의 초대 총독인 고든(Gordon)이 휘지의 토지가 거래되지 못하고 원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인도인은 휘지 전체 토지의 약 83%에 해당하는 원주민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농사를 한다. 1997년부터 장기 임대된 토지의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토지 임대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원주민과 인도인간에 심화되기 시작되었다.

5) 1920년대부터 자유 이민자로 휘지에 정착한 구자라트인과 펀잡인들은 자신들을 계약노동자로 정착한 사람들과 구분한다. 흔히 '인도인'이라 함은 계약노동자와 그 후손들을 지칭하지만 자유 이민자들은 '구자라티'와 '펀자비'로 불리운다. 자유 이민자와 '인도인'간의 관계는 또 다른 논문의 한편을 구성할 정도로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6) 외부자들의 시각에서 본 휘지 인도인은 휘지에서 장사술이 좋아 휘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사실 휘지의 상업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인은 1920년대부터 휘지에 자유이민 한 구자라트와 펀잡의 상인들이다. 그러나 외부자들의 이러한 시각은 휘지 내 인도인의 종족 정체성 구성에 한 몫을 한다.

교적 믿음과 의례는 인도인과 원주민을 구분 짓는 중요한 준거인 셈이다.

근래 들어 인도인과 원주민과의 혼인 사례가 드물게 있지만 두 집단 간의 혼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도인 내에서도 카스트보다는 출신 지역(남부 인도, 북부 인도)과 종교(힌두와 무슬림)에 따른 혼인이 보편적이었지만 과거 원주민과의 혼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 종교, 혼인 등의 문화적 내용은 휘지 이주 후에 형식과 내용상의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휘지 내 인도인의 정체성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의 극복을 자녀들의 교육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토지소유의 거의 불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녀들이 농업 외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자유 노동자로 신분 전환된 이후 가장 먼저 종교적 제도체인 힌두사원과 모스크를 지은 후, 다음으로 이들은 교육기관을 세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열에 힘입어 일찍이 1950년대부터 일부 인도인들은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와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 1968년 휘지의 수도인 수바(Suva)에 남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South Pacific)가 설립된 후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 원주민에 비해 인도인의 입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도인은 휘지가 남태평양의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오늘날의 위상이 세워진 데에는 자신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휘지 국가건설이라는 노력과는 달리 인도 본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단지 인도계통의 '휘지인'이라 정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언제나 휘지 땅에 살고 있는 인도인을 단지 '인도인' 또는 '이방인'으로 인식할 뿐이었으며,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1970년대 독립을 계기로 서서히 드러나다가 1987년 쿠데타를 통해 극명하게 표면화되었다.

IV. 휘지계 인도인의 호주 이주과정과 그 구성 및 조직적 특성

2001년 센서스에 따르면 호주의 휘지인은 44,261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를 구성하는 휘지 원주민, 유럽인, 중국인을 제외하면 휘지 인도인은 대략 40,000명으로 추정된다.[7] 휘지인 전체의 61.1%인 27,083명은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 브리스베인(Brisbane)을 중심으로 한 퀸스랜드

7) 호주 센서스 자료는 출생국을 토대로 인구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휘지계 인도인의 인구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휘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해외 이민자 정보에 따르면 매년 이민자의 약 90%가 인도인들이며, 휘지계 인도인 스스로도 휘지 출신 이민자의 90%이상이 인도인이라 생각한다.

(Queensland) 주에 17%, 멜버른(Melbourne)을 중심으로 한 빅토리아(Victoria) 주에 16% 거주하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은 95,452명의 인도에서 직접 이주한 자(direct migrants)와 달리 인도에서 휘지로, 휘지에서 호주로 이주한 소위 다중적 이주자(multiple migrants)[8]이다. 대략 1970년대 초 호주의 백호주의의 철폐로 시작된 간헐적인 이주와는 달리, 휘지계 인도인의 호주로의 이민이 본격화된 계기는 1987년 시작된 휘지 원주민 군부에 의해 주도된 쿠데타였으며, 이들의 이민은 2000년도의 또 다른 군부 쿠데타로 가속화되었다. 쿠데타로 인한 불안과 자녀들 미래의 불투명성 그리고 악화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휘지계 인도인은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민자는 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자격 소유자들과 그들에 딸린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휘지계 인도인의 이주는 전형적인 '가족 연쇄 이민'(family chain migration)의 형태를 보인다. 일단 일개 핵가족 단위로 이민이 이루어지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형제 자매와 부모의 이민이 이어지는데, 이는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스폰서가 가족 연쇄 이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족 전체가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으로 분산 이주한 경우 그리고 가족의 일부는 여전히 휘지에 체류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휘지에 체류하는 가족 대부분은 이주를 위한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쿠데타로 인한 인종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덜 받는 영역의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이다. 시드니의 캔터버리(Canterbury) 구의 도서관 사서인 자이안트 프라카쉬(Jayant Prakash, 45, 남)의 가족은 휘지계 인도인의 연쇄이민의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둘째 누나가 1980년 시드니에 간호공부를 하러 왔다가 주저앉고 다음으로 큰누나 가족이 1986년에 이민 왔다. 다음으로 내가 1990년 7월에 자신과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큰누나 집에 일시 기거했으며, 다음으로 1991년 남동생이 왔고 동년에 둘째형이 왔다. 이들 모두 큰누나 집에서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주를 보냈다. 그런 후 각자 자신의 집을 세 얻어서 독립하였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기 시작했다"

가족 연쇄 이민이 가능한 것은 스폰서 뿐 아니라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의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주자 대부분은 휘지에서의 자신들의

8) 다중적 이주자에 관한 논문은 많지 않다. 재 이주(twice migration)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세기 동아프리카의 우간다(Uganda) 등으로 이주하였다가 정착지의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국으로 재 이주한 집단에 대한 Bhachu(1985)의 '재이주자 : 영국에 정착한 동아프리카 시크교도들'(Twice Migrants : East African Sikh settlers in Britain)이다. Bhachu(1988, 1999), 1999)는 본인 스스로가 재 이주를 경험한 시크교도의 여성 학자로서 그녀는 후속 연구들에서도 재 이주를 포함한 다중적 이주 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호주에서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추가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정규 대학에 편입하여 보충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전의 직종에 복귀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종전 직종과 관계없이 호주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로 기술 보충교육을 받아 직종을 전환하여 취업하고 있다. 예컨대 찬드라 싱의 부인인 시타(Sita, 33)는 호주 이민 전에 휘지의 최대의 관광지인 난디에 밀집되어 있는 면세점의 직원이었다. 그러나 호주로 이주한 이후 고교졸업 학력에 자신의 세일 경력을 인정해 줄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여 호주사회에서 즉각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는 분야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가 많아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설 요양원의 조무사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장기간을 요하는 정규 학교과정이 있으나 사설학원에서 6주라는 단기교육을 수료하여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의 취업에 성공하였다. 휘지 인도인들이 단기간 내에 보충교육을 통해 취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영어구사력이 뛰어나 보충 교육의 수강 능력이 있고 일단 취업하더라도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장애에 크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로 이민 온 휘지계 인도인은 호주에 아무런 연고 없이 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휘지계 인도인은 휘지라는 작은 영토 내에서 원주민과는 상대적인 거리를 두고 인도인 커뮤니티 내에서 120여년 이상을 생활해 왔다. 따라서 이들은 혼인, 친족, 종교, 학연, 지연 등의 라인에 따른 밀도 있는 네트웍과 조직 등의 자산을 이미 이민오기 전에 갖추고 있다. 호주로의 이주 전에 이미 휘지에서 확립된 사회적 연망은 휘지계 인도인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정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청의 민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인 사티쉬 라즈(Satish Raj, 남 47)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우리는 백년 이상을 조그마한 섬에서 살아 왔다. 휘지 시절부터 학교, 종교 기관, 시장, 결혼식장 등에서 인도인들은 서로를 자주 만나게 된다. 내가 이민 와서 처음으로 어느 라마얀 만달리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나는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나의 중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이런 경우는 휘지 인도인의 장례식, 결혼식, 축구 시합장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설령 직접 모르더라도 친척, 동창, 이웃을 이용해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휘지계 인도인들이 호주에 이민 오게 되면 이주 당일부터 가족과 친족원 또는 친구의 집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까지 임시 체류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이들 인근의 유닛(unit)을 렌트하여 독자적인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

휘지에서의 기존 네트웍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착은 자연스레 휘지계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집중 거주지(enclave)의 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단지의 인근에는 인도 또는 휘지의 산물을 취급하는 잡화점, 의류점,

식당 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휘지계 인도인의 지속적인 정착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시드니의 서부와 남서부의 외곽에 위치한 리버풀(Liverpool), 블랙타운(Blacktown), 캠벨타운(Cambelltown) 구(區)들은 신흥 휘지 인도인의 밀집지구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이 지역의 주택값이 저렴하면서 새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밀집지구의 형성은 휘지계 인도인들의 종교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호주에 거주하는 전체 휘지계 인도인의 약 7%가 무슬림이며 소수의 시크교도와 기독교도를 제외하면 약 90%의 휘지계 인도인은 힌두교도이다. 휘지에는 각 지방 대도시마다 거대한 힌두 사원들과 모스크가 있다. 호주에서 무슬림의 경우는 힌두와는 응집력이 강해 리버풀에 휘지인이 건립한 모스크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힌두의 경우는 '라마야나 만들리'(Ramayana Mandli)[9]와 같은 독특한 종교활동만 수행할 뿐 현재까지 정상적인 휘지계 인도인 힌두 사원은 없다.

사실 휘지에 정착한 인도인들은 촌락 등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의례 집회인 '만들리'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들은 호주 이민 후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동성이 잦은 시드니 내에서는 철저히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만들리 조직의 운영이 어렵지만 대체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00-400가구로부터 5-6가구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만들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경우 매주 의례 집회를 갖는다. 새로 이민 온 자도 만들리에 참여하

9) 휘지에서의 라마얀 만들리 운동(the Ramayan Mandli Movement)에 대해서는 Ian K. Somerville(1986) 참조 바람. 휘지 정착 초기에 인도인들은 하루의 작업이 끝나는 저녁시간이나 노동이 없는 휴일에 거주 장소를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들 중 소수가 이주 당시 가져온 라마야나 경전을 중심으로 경전을 낭독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를 달랬다. 자유노동자 신분이 된 이후 인도인 거주지에는 사탕수수 노동그룹 소위 'sugar gang'이 단위가 되어 모여서 종교적 집회를 하였다. 현재까지 휘지 내의 모든 인도인 정착지에는 여러 개의 라마얀 만들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만들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각 만들리는 자신들의 명칭과 자율적인 집행위원회를 갖고 있다. 즉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후원자 등은 기본이고 규모가 큰 만들리의 경우 자신들의 사제를 갖고 있다. 휘지 내에 "휘지 정통 힌두교 전체회의"(Sri Sanatan Dharm Pritinidhi Sabha of Fiji)가 있으며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만들리는 이 전체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휘지 내에서도 만들리 내부에서 리더십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만들리를 만들어 독립하는 경우가 벌어진다. 휘지에도 힌두사원이 인도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도심마다 있지만 특별한 의례나 축제 시에 사원을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대중적인 의례적 활동은 만들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만들리의 일반적 사항은 호주로 이주한 휘지계 인도인의 만들리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호주로 이주한 이후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만들리 구성원 집집마다 순차적으로 종교적 모임을 갖는 형식으로 만들리가 운영되고 있다. 휘지처럼 호주에서도 리더십 경쟁이나 새롭게 이사온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 수는 느리게 증가되고 있다. 이 모임은 라마야나(Ramayana)를 읽고 이에 대한 해설을 돌아가며 하고, 악기에 맞춰 노래하고 찬송하고 전체가 회식을 한 후 일상적 대화를 즐기고 귀가한다.

게 되면 휘지에서 알고 지냈던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힌두 만들리는 휘지계 인도인의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이주 사회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호주 거주 전체 휘지계 인도인을 아우르는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 간에 다양한 라인을 통해 안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들리 조직 외에 휘지계 인도인의 대규모의 혼인식과 장례식 등의 의식적(ceremonial) 모임들은 휘지에서의 밀집된 네트웍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모임 외에 휘지계 인도인들은 휘지에서 운영하고 개최하였던 축구 클럽과 정기적·부정기적 각종 페스티발을 호주에서 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이 휘지와 관련됨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에 조직된 호주 휘지 축구연합회(Australian Fiji Soccer Association)를 통해 휘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년에 4회에 걸친 토너먼트를 하고 있다.[10] 축구 클럽의 구성은 선수들의 휘지 출신지를 배경으로 조직되는데, 예컨대 휘지의 수바 출신 선수는 수바 팀에 소속되며, 응원단 역시 수바 출신 휘지계 인도인들로 구성된다.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휘지계 인도인들을 공간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다른 기제에는 휘지계 인도인이 24시간 운영하는 사설 소규모 라디오 채널, 힌디어 주간신문, 영어 월간잡지 등의 미디어들이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TV 방송이 휘지에서 개시되었다는 것과 인도인들이 휘지 섬에 산재해 거주하였던 사실은 라디오가 인도인을 공간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주로의 이주 후에도 일부 밀집거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휘지계 인도인이 대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휘지계 인도인의 라디오 채널은 혼인과 장례 소식 그리고 휘지 내의 정치적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는 중요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유일한 힌디어로 간행되는 휘지계 인도인 주간 신문과 영문 월간 잡지는 휘지와 인도의 주요 뉴스를 요약해 주고 호주 내 휘지계 인도인과 직접 이주 인도인 커뮤니티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

---

10) 영국인들은 휘지에서 원주민과 인도인들을 분리시켜 관리하였다. 예컨대 휘지인들에게는 럭비를 인도인에게는 축구를 도입한 것이다. 물론 현재는 종족적 구분 없이 두 경기를 즐기는 소수의 젊은 세대도 있지만 아직도 럭비와 축구는 휘지인과 인도인을 구분 짓는 유용한 분리 역할을 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휘지 인도 축구연합회의 개최로 실시된 휘지 지방간 축구 토너먼트(inter-district tournament)는 현재까지도 휘지에 이어져 오고 있다.

V. 호주에서의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

휘지계 인도인에게는 사프란(Safran, 1991)이 말한 '귀환의 신화'(myth of return)는 없다. 세계 도처에 있는 인도인 집단들 가운데 휘지와 카리브해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계 사람들'(Peoples of Indian Origin, PIO)은 소위 재외인도인(Non-Resident Indians, NRI)[11]과 달리 자신의 기원지였던 인도와의 접촉이 단절되어 문화적 요소들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인도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게 있어 인도는 단지 자신의 조상들의 출생지이자 자신의 문화의 기원지 그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간헐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휘지계 인도인들은 관광객의 일원으로 힌두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전부이다. PIO에 속하는 호주 휘지계 인도인에게 인도는 언젠가는 귀환해야 하는 고국이 아니다. 이에 대해 리버풀 구청의 공무원인 라젠드라 싱(Rajendra Singh, 남 51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의 증조부모 모두 인도 우타르 프라데쉬 출신인데 휘지로 노동자로 와서 만났다. 돌아가신 부친이 어린 시절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할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로 보면 증조부가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아마 나의 할아버지 때까지는 막연히 인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아버지나 나 그리고 내 동생들을 보면 인도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친구를 사귀고 학창시절을 보낸 곳,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곳이 휘지이고 나와 나의 선조들은 지금의 휘지가 건설될 때까지 헌신을 다 했기 때문에 휘지는 나에게 모국이다. 인도는 단지 내 문화가 온 곳, 특히 우리가 큰 신이라고 믿는 라마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성지순례를 가 볼만한 곳이 인도라고 생각한다."

라젠드라 싱처럼 대부분의 휘지계 인도인들은 자신의 증조부 또는 고조부가 인도에서 왔지만 너무 오랫동안 접촉이 단절되어 인도에 관한 기억과 접촉 경로가 전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귀환을 한다면 오히려 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수리공인 운영하고 있는 자기디쉬 람

---

11) PIO와 NRI는 그 이주 배경과 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19세기 영국식민주의 기간 동안 인도양 연안(모리셔스와 우간다 등), 카리브해 연안(트리니다드와 구야나 등), 태평양 연안(휘지)에 계약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된 사람들로서, 사탕수수와 고무 플란테이션 또는 동아프리카 철도공사장에 배치되어 5년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대부분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후자는 대략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농촌출신자들이 전후(戰後) 부족한 비숙련 노동력 충원을 원하는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여, 대부분은 현재 이주국의 노동계급과 영세 부르조아(pretty bourgeoises)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 시작된 학력과 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출신의 숙련기술자, 과학자 및 의사들은 서구 산업국가의 도시 중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Jagidish Ram, 남 53)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휘지는 참으로 살기가 좋았다. 호주와 달리 모든 것이 느슨하게 돌아가고 먹을 것도 싸고 매일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우리는 휘지 원주민과도 너무 좋은 관계를 지내왔다. 시드니처럼 계절이 확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지내기도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자신처럼 군사 쿠데타가 있기 훨씬 전인 1970년대 말에 이민 온 사람들은 호주에서 살다가 은퇴해서는 휘지에 지내고 싶었다. 내가 자랐던 곳이고 나의 모든 친척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987년 첫 번째 쿠데타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은퇴하면 가보지. 사정이 진정되겠지 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자 나는 휘지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호주에서 죽을 때가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나의 부모를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를 호주로 이민 오도록 도와준 것이다."

휘지계 인도인들은 휘지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토대를 통해 호주에 새로운 집단과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호주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휘지계 인도인 친족원과 친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초국가적(transnational)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많은 휘지계 인도인처럼 사설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 프라사드(Jay Prasad, 남 55)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의 이주사와 이주 후 초국가주의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형제는 8남매이다. 맏이는 교사인 누나인데 현재는 휘지에 있지만 내년(2003년)에 미국에 있는 아들 초청으로 미국으로 간다. 둘째인 형은 캐나다에서 구세군이고, 셋째인 나는 휘지 방송국에 근무하다가 1988년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호주로 이민왔다. 넷째인 남동생은 휘지에 있지만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섯째 교사를 하고 있는 여동생은 1998년에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 여섯 번째인 여동생은 20여년 전에 미국에 있는 휘지계 인도인과의 중매 결혼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일곱 번째와 마지막 두 남동생은 200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전부 모이기란 거의 어려워졌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누나와 함께 계시다 돌아가신 어머님 장례식에서나 모두 모일 수 있었다. 이처럼 집안에 누가 죽거나 결혼을 해야 만이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휘지의 쿠데타 이전에도 서구 사회로의 이주는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경향을 급격하고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주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휘지를 벗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로 이주를 하였고 여전히 원하고 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가족과 친족원을 만나기 위해서 휘지를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야하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전화나 가족의 대소사를 위한 방문도 휘지가 아닌 다른 곳이 되었다. 이에 대해 호주 무슬림 연합회 사무국장인 휘지계 인도인 무슬림인 암자브 마하브(56, 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직접적인 가족원 모두는 휘지를 떠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산다. 지난 해 호주 무슬림 연합회 일로 휘지를 간 적이 있다. 그러나 휘지에 나의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가까운 친족원까지 모두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3일 동안

휘지의 호텔에서 지내야 했다. 물론 먼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3일 밤을 신세질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제 휘지에 가도 나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들이 없다. 우리 아이들도 사촌형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휘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나 캐나다를 가야한다."

반면 NRI에 속하는 직접 이주자는 호주 등 외국에 거주하지만 본국 인도에 대한 자본의 투자, 가족에 대한 송금, 배우자 선택, 인도 국내 정치적 상황에의 관여 등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국인 인도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방식의 초국가주의와 관련된다. 모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호주 국립 기술전문대학교(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전임강사인 쿨 카르니(Kul Karni, 남 5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1996년도에 호주로 이민 왔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인도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3년에 한번은 인도의 큰 축제 때 인도 고향을 방문하려고 한다. 부인과 아들 한 명과 이민왔는데 부인이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인도를 다녀왔고 이제는 아들의 결혼문제 때문에 인도를 한 번 더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전화로 인도 고향에 있는 형님에게 며느리감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전화가 오면 직접 한 번 보러 아들을 데리고 인도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곳(호주)에도 인도 아가씨는 많이 있지만 이곳에 오래 산 아이들은 인도 아가씨가 더 이상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생각이 많이 다르다. 다행히 우리 아들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인도의 문화적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며느리도 인도에서 직접 구해오고 싶다."

직접 이주민 인도인과 휘지계 인도인은 인도로의 귀환신화의 여부, 모국의 개념, 초국가주의적 상호관계의 유지 등에 있어서의 상이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직접 이주 인도인과 휘지계 인도인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경계를 형성한다.

자신의 고국을 정의하는 차이는 각자의 정체성의 차이를 가져온다. 호주의 백인을 포함한 제 3자의 시각에서는 휘지계 인도인과 직접 이주 인도인간에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남아시아인으로 범주화되지만, 두 당사자 집단들은 서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은 인도와 무관한 '아이랜더' 또는 인도 기원을 가진 '휘지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도 직접 이주자와 구분을 하고 있다. 한편 인도 직접 이주자들은 휘지계 인도인처럼 계약노동자의 후손을 자신들과 동일시할 수 없는 '순수치 못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구분하고 있다.

사실 직접 이주 인도인과 휘지계 인도인 간에는 이주 배경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 직접 이주자는 고학력을 소지한 의사, 변호사, IT 공학도, 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이주한 반면, 휘지계 인도인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휘지계 인도인을 가난한 하층카스트 노동자들의 후손으로 태생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배경을 지닌 열등한 사람들이며, 자신들과 달리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에서 비전문직 블루 칼라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직접 이주자들의 배타적 태도에 직면해 휘지계 인도인은 직접 이주자 인도인들을 본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카스트와 신부지참금과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한다. 또한 휘지계 인도인은 직접 이주 인도인들의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자신들은 복수사회(plural society) 또는 다종족(multi-ethnic) 사회인 휘지에서 성장함에 따라 '다름'에 대한 관용과 융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 직접 이주한 인도인들과의 관계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휘지계 인도인들은 직접 이주 인도인들을 매우 오만하고 독불장군 식의 태도를 자신들에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더라고 주변의 휘지계 인도인들의 경험을 통해 직접 이주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폐쇄적임을 들었다고 한다. 이들이 직접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인터뷰 도중 상당수의 휘지계 인도인들이 고학력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인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원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휘지계 인도인들은 언어, 음식 습관 등 문화적 요인을 둘러싸고도 자신들을 직접 이주 인도인과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직접 이민 인도인이 휘지계 인도인의 힌두스타니를 '엉터리 힌디'(broken Hindi)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휘지계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집회나 만남에서 힌두스타니만을 사용한다. 힌두스타니 자체는 그들의 고난했던 휘지에서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휘지계 인도인은 직접 이민자 인도인의 영어 발음이 모국어 간섭을 강하게 받아 듣기 거북한 점과 다르게 자신들의 유창한 영어 발음은 인도인과 구별을 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음식 관습 또한 휘지계 인도인을 직접 이주자와 대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케 한다. 카스트를 불문하고 휘지에서 철저한 소고기 금식은 자신들과 원주민을 구분 짓는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호주로의 이주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소고기를 제외하고 육식을 했던 휘지계 인도인 일부는 호주 이주 후 서양문화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후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주의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직접 이주한 인도인들의 경향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직접 이주 인도인들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 교육받은 경력 외에도 인도 대도시 출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 이민 이전에 이미 서양의 음식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시드니의 뉴사스 웨일즈 대학교 사회학과 행정사무원인 툴리카 야다브(Tulka Yadav, 여 39)는 자신의 아들이 호주 내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먹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연구자에게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휘지계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주 인도인보다 더욱 종교적이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로 직접 이민 온 인도인 사제인 판디트 나라얀(Pandit Narayan, 남 38)의 진술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는 힌두 사제이기 때문에 인도인 가정(직접 이주자를 말함)에 의례 때문에 늘 방문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정도나 하는 일들을 잘 안다. 나의 많은 의례적 단골들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 등 그야말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데 이들이 가정 의례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전문가로 존경은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례를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본다든지 의례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별로 의례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끔은 휘지계 인도인들도 의례를 위해 나를 부른다. 이들 가운데에도 가끔은 전문직 종사자가 있지만 대부분 기능공이나 말단 사무원 등이 많다. 나는 이들이 낮은 카스트에다 노동자 조상의 후손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이주자들이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최소한 종교에 한하면 휘지계 인도인들이 진지하고 의례를 정성껏 준비하고 모시는 것 같다. 게다가 이들의 의례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휘지계 인도인을 인도인과 구분시켜주는 것은 이들이 라마얀 만들리 미팅과 기타 사교적 모임 후 남성들의 양고나 제조와 음주에 있다. 이는 휘지 원주민들로부터 차용한 문화적 요소들로서 인도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카스트, 종교(힌두, 무슬림) 등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그룻으로 동일한 양고나를 마실 수 있음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휘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인다.

휘지계 인도인의 호주에서의 정체성 구성은 그들의 종교와 커뮤니티의 조직적 특성과도 관계된다. 휘지계 인도인의 종교생활은 남아시아 출신 직접 이민자의 개인적인 사원 방문적인 활동과는 달리 집단적 모임의 성격을 띄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은 소속 만들리의 집회에 주마다 참여하는데, 이 집회는 종교적 성격을 띈 사회적 모임이다. 모든 소속 가정의 전 가족원이 집회에 참여하여 라마야나 리사이틀을 하고 전체 회식을 한 후 밤늦게까지 모여 이민 생활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한다.

커뮤니티 조직에 있어서 휘지계 인도인과 직접 이주자[12] 간에는 그 구성의 토대에 차이가 있다. 두 집단의 많은 조직이 상대를 배타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지만, 커뮤니티 조직의 차이로 인해 두 집단 구성원의 교류나 교차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의 조직운영은 각각 집단의 정체성을 표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이주자와는 달리 휘지계 인도인의 모임은 빈도수가 잦고 조직 활동과 일상적 활동이 중복되어

12) 직접 이주한 인도인 집단 전체의 공식적 대표 조직은 「United Indian Association」과 「Federation of Australian Indian Association」이며, 인도 내 출신지 별 조직은 「Bengali Association of New South Wales」, 「Marathi Association Sydney Inc」, 「Sydney Kannada Sangha」, 「Sydney Tamil Manram Inc」, 「Telugu Association of Sydney」, 「the Malayalee Association」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종교별 조직으로서 호주 내 힌두들의 대표 조직인 「Hindu Council of Australia」, 시크 조직으로 「Sikh Mission Center」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이주자 집단의 조직 구성의 토대는 종교, 언어, 출신지역 등이며, 이러한 조직은 인도인 또는 남아시아인의 정체성보다는 특정 종교, 출신지 별 정체성을 강조한다.

해당 조직의 밀도가 매우 높다.

휘지계 인도인의 라마야나 만들리 조직은 거주지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규모도 다양하다. 예컨대 「Sri Sanatan Dharm Sabha of Sydney West」은 시드니 남서부 휘지계 인도인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Livepool Sanatan Ramayana Mandli」는 특정 구(區)인 리버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Bonnyrigg Ramayan Faag Mandli」는 특정 구 내의 특정 주택지역(suburb)인 보니릭 주택지역의 모임이다.

모든 만들리가 인도 휘지 전체 상부 조직인 「Sri Sanatan Dharm Prarinidhi Sabha of Australia Inc」에 소속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상부 조직은[13] 일년에 3-4회에 걸친 라마야나 리사이틀 경연대회 등을 통해 휘지계 인도인 전체적 모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은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VI. 결론을 대신하며

휘지계 인도인은 자신들을 어떻게 정체화 하는가? 종족성은 특정 개인과 집단의 처한 상황과 관련된다. 영국에서의 카리브계 인도인(Indo-Caribbeans)이나 모리셔츠계 인도인(Indo-Mauritians)인들이 주재국(host country)의 지배적 집단인 백인들에 의해 남아시아인 또는 아시아인으로 범주화되듯(S. Vertovec, 1994)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도 동일한 경험을 겪는다. 일상에서 만난 백인들에 의한 남아시아인 취급으로 인해 많은 휘지계 인도인들은 스스로가 아이랜더 또는 본토 인도인과 속성이 다른 휘지 출신 인도인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한다.

휘지계 인도인은 인도를 비롯한 직접 이주한 남아시아인의 사회·종교적 조직과 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서 자신들만의 종교조직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등하게 간주하는 직접 이주 인도인들의 시각은 오히려 휘지계 인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휘지에서 오랜 세월동안 유지해 온 문화적 내용과 사회적 연망에 집착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적 이주자'인 휘지계 인도인은 호주 이주 이전에 휘지에서부터 형성된 기존의 적응 기술과 사회적 네트웍을 통해 직접 이주자들이 갖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자산을 소지하고 있다. 한 예로서 휘지에서 시작된 '라마야나 만들

13) 이에 반해 무슬림 조직은 「Muslim league of New South Wales」, 「Islamic society of Western Sydney」 등이 휘지계 인도인 무슬림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종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 조직과 그 활동은 '휘지계 인도인 식'의 종교적 내용 구성과 인간들간의 관계의 유지 및 정기적인 사교적 회합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휘지계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유지와 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주류 백인집단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남아시아인으로의 규정과, 소위 정통 인도인이라는 직접 이주자들의 휘지계 인도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화의 과정이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 휘지계 인도인의 정체성은 언어와 음식 등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과 기존의 사회적 연망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성격은 아니다. 휘지계 인도인의 정체성은 대(對) 백인들과 그리고 직접 이주자 인도인들과의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휘지계 인도인 정체성은 자신들의 언어사용, 종교활동의 특징 등, 일부 문화적 토대와 독특한 사회 조직과 경험을 통한 자신들의 '종족적 동일시'와 백인과 직접 이주 인도인 등 외부자에 의해 부여되는 '종족적 지정' 간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이태주. 2000. 「멜라네시아의 토지 공동체주의와 전통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33(1):16. pp.1-205.

Barth, Fredrik. 1969. *Ethnic Groups and Ethnic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hachu, Parminder. 1985. *Twice Migrants : East African Sikh Settlers in Britain.*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s.

_____. 1988. "Home and Work : Sikh Women in Britain." In Bhachu, ed. *Enterprising Women : Ethnicity, Economy and Gender Relations.* London: Routledge.

_____. 1999. "Multiple Migrants and Multiple Diasporas." In Singh, P. & Shinder. Thandi, eds. *Punjabi Identity in a Global Context.* Delhi : Oxford Univ. Press.

Eller, Jack. David. and Reed M. Coughlan. 1993. "The Poverty of Primodialism : the demystification of ethnic attachment." *Ethnic and Racial Studies* 16(2). pp.183-202.

Gillion, K. L. 1962. *Fiji's Indian Immigrant.* Melbourne.

Lal, Brij. V. 1983. *Girmitiyas : The origins of the Fiji Indians.* Canberra: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_____. 1996. "The odyssey of Indenture: Fragmentation and Reconstitution in

the Indian Diaspora." *Disaspora* 5(2). pp.167-188.
Mayer, Adrian. C. 1961. *Peasants in the Pacific.*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agel Joane. 1998. "Constructing Ethnicity: creating and recreating ethnic identity and culture." In Michael W. Hughey, ed. *New Tribalism: the resurgence of race and ethnicit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Spring. pp.83-99.
Somerville, Ian. K. 1986. "The Ramayan Mandli Movement : Popular Hindu Theism in Fiji." Ph. D. Thesis. University of Sydney.
Vertovec, Steven. 1994. "Caught in an ethnic quandary." In Roser Ballard et al., ed. *Desh Pardesh.* London: Hurst & Company.

The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Indo-Fijians in Australia

Kim Kyung-Hak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rocesses of ethnic identity construction among Indo-Fijians in Australia. If we understand the notion of ethnicity as mutable or changeable, then one's ethnic identity is a composite of the view one has of oneself and the views held by others about one's ethnic identity.

The Indo-Fijians in Australia are "twice migrants" who relocated a second time from Fiji primarily due to the military coup in 1987 led by the Fiji native military. The ancestors of the Indo-fijians had came to Fiji as 'indentured labourers' from 1879 to 1916. This type of migration can be contrasted with those Indians who migrated directly from India to Australia: Indo- Fijians had lived much longer overseas, their regional origins in the Indian Continental were different and they had some distinct experiences as overseas settlers. As a result of their severance, they felt they had no connection with the networks on the subcontinent.

In general, white Australians, who fail to recognize of the Indo-Fijians' distinctive accents, style and mannerisms, tend to lump them into the generalized category of " Indians" or "South Asians." Meanwhile those Indian settlers who have come to Australia directly tend to perceive Indo-Fijians as "semi-Indians" or "inferior." Though physically similar to themselves, they often talk, dress and act in uncustomary ways. While Indo-Fijians are regularly identified as "South Asians" by

most whites, they are also socially and culturally marginalized by most other South Asians, especially direct Indian migrants.

It is incorrect to state that Indo-Fijian Identity is based only on the cultural content(dress, language, etc) and physical features of the Indo-Fijians. Although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Indo-Fijians from direct Indian migrants through the difference in language usage, dress, culinary habits, social organization etc, the ethnic identity should not be seen as given or long-established. The ethnic identity of Indo-Fijians is the result of a dialectical process involving internal and external opinions and processes, as well as Indo-Fijians' self-identification and outsiders' (White and direct Indian migrants) designations. When Indo-Fijians (perceived as a minority group in Australia) encounter opposition from the direct Indian migrant group (the majority group in terms of number of persons, educational careers, wealth etc), they may turn to their own ethnic history(history of indenture) and culture and intensify their attachments to these factual and symbolic phenomena. But this history and culture are not 'primodial' but rather are themselves construc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specific devices and mechanisms of cultural reproduction, including ethnic identity. We must examine the actual practices that Indo-Fijians have developed to preserve and transmit its culture. Indo-Fijians have taken advantage of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institutions already established in Fiji to preserve their identity. One of the actual practices among Indo-Fijians in Australia is *Ramayan Mandli*(Ramayana Association), which is based on residence. Organizations such as *Ramayan Mandli* will foster and preserve a unique sense of Indo-Fijian identity.

Keywords: Indo-Fijian, Ethnic Identity, Multiple Migrant, Ethnic Identification.

김경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부교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Tel: 062-530-2693. Email: khkim@chonnam.ac.kr